



펄프수입 지속 증가 추세
금년 종이·판지 수요량 2,900만 톤

금년 중국의 종이 및 판지 수요량은 2900만 t에 달하는 한편, 제9차 5개년기간(1996~2000)중에도 매년 약 150만 t 씩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96년 국제시장의 펄프가격 인하에 따른 대량 수입으로 현재 중국내 펄프 재고량은 크게 증가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종이류에 대한 기존의 수입 우대 관세혜택을 철회함으로써 상당폭의

수입감소가 예상되지만, 목재펄프의 경우 중국내 관련업체의 생산부족으로 지속 수입될 전망이다.

최근 국제 펄프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금년 중국시장 가격도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96년의 대량 수입으로 올 상반기에는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환경오염 방지 목적으로 96년 9월 30일까지 생산능력이 5천 t 이하인 소형 펄프생산업체들을 전부 폐쇄했는데 이 역시 펄프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문용지 등 일부 종이제품의 수급상황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신문출판분야에 대한 治散 治濫(무질서한 신문출판업 통제합)조치로 신문출판분야의 신문 종류 및 발행부수 증가를 억제할 방침으로 있어 향후 신문용지 수요량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내 신문용지 생산업체들은 기술혁신과 생산능력제고로 국내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신문용지시장은 예년과는 달리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시장 가격도 안정된 상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단위:백만 t)

품 목 명	1994	1995	증감률
신 문 용 지	74	79	6.8
인 쇄 용 지	60	71	19.2
펄 기 용 지	135	90	-33.2
크라프트라이너	86	58	-32.4
화 장 지	136	174	28.0
포 장 용 지	-	1,512	-
총 계	2,138	2,812	31.5

[자료 : 중국해관통계 93~96년]

● 종이 및 펄프 수출입실적 (단위:백만 t)

구 분	수 입	수 출
1993	74	79
1994	60	71
1995	135	90
1996	86	58

[자료 : 중국해관통계 93~96년]

요르단, 인쇄용지 수입선 전환
리우협약이후 제조기술보유국 우선시

요르단은 인쇄용지의 생산시설이 전무해 수요전량을 수입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95년의 경우 요르단의 인쇄용지 총 수입규모는 3천만달러 규모로 92년대비 126% 대폭 신장했다.

최대 공급국은 브라질이지만 94년부터는 리우환경협약 영향으로 열대림의 벌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출량의 감소 및 수출가격이 상승해 대 요르단 수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94년부터는 값싼 원재료의 조달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오던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열대림 국가수출은 크게 줄었다. 대신 독일, 핀란드, 미국 등 우수한 제조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94년과 95년에도 요르단의 인쇄용지 총 수입규모는 3천만달러 규모로 92년대비 126% 대폭 신장했다.

▲ 한국산 수입상당 증가

우리나라의 수출은 아주 미미한 편이나 최근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대체 수입원으로 선진국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나라 종이의 수입을 상당하는 수입상이 늘고 있다.

인쇄용지 수입과 관련된 규제조치는 전무하다. 단지 수입시 관세율은 97년 3월 2일자로 발효된 통합관세법에 따라 20%가 적용된다. 새로운 관세율 20%에는 구관세율 15%에 지방세, 교육세 등과 수입허가세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국세인 판매세 10%는 종전과 같이 C&F 수입가격에 관세부과후 계속 징수하고 있다.

종이의 수요자는 신문사를 포함한 인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상들이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

수입상은 대규모 자금력과 창고를 갖추고 일시에 많은 물량을 수입해 수시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대규모 수입상과 소규모 인쇄소 및 최종 소비자들에게 납품하기 위해 소량씩 수입하는 커미션 에이전트로 분류된다.

대규모 수입상들은 최근 국제적 가격상승과 공급난을 기회로 요르단의 시장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어 가격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인쇄소에서는 최종 소비자들의 주문에 따라 여러 품질의 인쇄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쇄기술의 미 발달과 인쇄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찢어지지 않는 종이 등 최고급용지의 수요는 매우 적은 편이다.

현지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은 Wood Free지이다.

시장이 협소하고 경쟁이 치열해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경우가 드물어 50t 미만의 소량주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종이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바이어들의 소량주문 수용방안 마련이 제1관건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인쇄용지의 공급부족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특히 소량이더라도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출업체가 선호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 국내 공급량 부족을 이유로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현지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따라서 공급업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바이어들에게 알려주는 신용거래가 요구된다.

수입상들은 포장이 불량해 운송과정에서 손실

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감김 및 절단상태가 불량해 인쇄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상의 손실을 감안해 여유량을 선적 하던가 손실분에 대해 바이어들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신용거래에 중요한 장점으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 ASGS社
폴리프로필렌 공급업체 찾아

A.S.G.S(Abu-Sleem For Trading & G. Services)사는 터키에 현지 법인인 Beru Boru 압축 파이프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요르단에서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폴리프로필렌을 수입, 공급하는 국제기업이다.

터키 Beru Boru 공장의 원료조달은 요르단의 A.S.G.S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핀란드와 벨기에로부터 폴리프로필렌을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가격문제만 해결되면 차체에 한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우리 업체의 견적서 송부 등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수입동향 (단위:백만 t)

국 별	1994	1995	1995
한 국	8	-	279
인도네시아	1,520	70	2,557
슬로베니아	462	415	1,991
핀 란 드	1,132	183	1,713
독 일	1,931	548	422
미 국	413	256	59
브 라 질	15,657	11,335	13,617
인 도	-	17	5,114
기 타	2,071	1,046	5,667
총 계	23,280	13,870	31,419



ASGS사가 수입을 희망하는 폴리프로필렌은 PPRC(Polypropylene Random Copolymer Type 3)로 가격문제만 해결되면 터키 공장에 조달한 첫 오더 500t과 요르단 중소기업체 조달용 물량은 첫 거래 성사 후 결정할 예정이다.

요르단의 폴리프로필렌 연간 수요량은 2천만 달러 수준인데 총수요의 80%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95년도 총수입은 전년대비 43.3%가 증가한 1,892만달러로 요르단 정부의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경제개발정책으로 최근 중소 제조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요르단의 적은 소비시장에 비해 비교적 수요가 큰 폴리프로필렌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공급실정은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편이다.

요르단시장은 인접국 사우디의 대형 공급업체 Savic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고 있고, 가격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의 Savic은 남북 두공장에서 13개 아이템을 나누어 제조하고 있는데 물량조달에 잦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문량이 적고 가지수가 많은 수입업자들의 요구에 Savic이 즉시 조달에 허점을 보이고 있고, 가격조정 횡포까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요르단의 A.S.G.S사는 사우디 외의 제3국에서 계속 필요 물량을 수입해 자체 터키 공장에 공급하는 한편 요르단시장에서 도매상 역할도 하고 있다.

A.S.G.S사는 이번 핀란드와 벨기에의 가격인상을 계기로 한국업체들이 가격 불안정 문제만 해결해 주면 즉시 주문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이사회 디자인보호 지침안 채택
집행위 제안 '수리조항' 삭제로 일단락**

연간 300억 ECU 상당의 자동차 부품시장을 둘러싸고 그간 치열한 양상을 보여온 유럽 자동차업계와 부품업계간의 분쟁이 일단은 자동차 제조업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EU 이사회가 13일 지난 93년부터 추진해온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 보호에 관한 지침안을 채택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가 제조업계에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범퍼, 윈드스크린, 자동차 문짝, 램프와 같은 부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집행위가 제안한 이 지침안은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회원국의 기존 법률 조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지침안에 포함된 '수리조항'에 대해 회원국간은 물론 자동차 제조업계와 부품업계간에 상당한 이견을 보여왔다.

'수리조항'은 자동차와 같이 여러 부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제조업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경우 독립적 부품업체가 당해 제품의 시장출하 즉시 자유로이 부품을 생산, 판매 혹은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거대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압력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독립적인 자동차 부품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자유로이 제조, 판매할 수 없어졌으며, 또한 영국과 같이 이미 자동차 스페어 부품시장을 자유화한 회원국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자동차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 다른 회원국에 부품을 판매할 수도 없다. ☐